

SK홀딩스 82위에 GS홀딩스 237위

포춘, 2010년 매출1위 월마트 선정 ... 포스코 161위에 한화 320위

미국 경제전문지 포춘이 선정한 2010년 매출 기준 글로벌 500대기업에 국내기업 14개가 포함됐다.

포춘이 2010년 매출액 기준으로 글로벌 500대기업을 선정한 결과, 삼성전자가 22위를 기록해 2009년 32위에서 10계단 뛰어올랐다.

현대자동차는 78위에서 55위로 23계단, SK홀딩스는 104위에서 82위로, 포스코는 272위에서 161위로, 현대중공업은 375위에서 219위로, GS홀딩스는 300위에서 237위로, 한국전력은 306위에서 270위로, 한화는 358위에서 320위로 상승했다.

다만, 삼성생명은 316위에서 332위로 떨어졌다.

이익부문 순위에서는 삼성전자가 22위를 기록했으며, 매출성장률 기준으로는 포스코와 현대중공업이 각각 11위와 14위를 차지했다.

1위 매출은 4219억달러를 기록한 월마트가 차지했으며 이어 Royal Dutch/Shell, ExxonMobil, BP, Sinopec 등 글로벌 석유기업들이 2-5위에 올랐다.

이익 면에서는 네슬레가 328억달러로 가장 많았고 이어 러시아 석유기업 Gazprom, ExxonMobil, 공상은행, Royal Dutch/Shell 순이었다.

글로벌 500대기업에는 36개국 이 올랐고. 미국이 133개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일본 68개, 프랑스 35개, 독일 34개, 영국 30개, 스위스 15개, 한국 14개, 네덜란드 12개, 캐나다 11개, 이태리 10개, 오스트레일리아 8개 순이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1/07/08>